

화학제품 생산 호조에 섬유 부진

통계청, 8월 화학제품 생산 5.4% 증가 ... 섬유제품은 6.3% 감소

설비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생산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이 좀처럼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.

통계청이 발표한 <8월 산업활동 동향>에 따르면, 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.5% 늘어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7월 7.0%보다는 둔화됐다.

산업 생산이 둔화된 것은 현대자동차 분규로 자동차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이다.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산업 생산증가율은 6.0%로 7월 5.7%에 비해 0.3%p 높았다.

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.8%, 영상음향통신은 14.7% 증가한 반면, 자동차 생산은 노사분규 등의 영향으로 0.1%, 휴대용컴퓨터 등 사무회계용 기계 생산은 14.9% 감소했다.

화학제품은 의약품, 엔지니어링 플라스틱, 화장품이 호조를 보이며 5.4% 증가했고, 섬유제품은 염색직물, 합성섬유직물, 합성섬유사 부진으로 6.3% 감소했다.

생산제품 출하는 5.8% 늘어 8월의 6.4%에 비해 0.6%p 둔화됐는데, 내수용 출하는 4.5%, 수출용은 7.7% 늘어 수출용 출하증가율이 내수용 출하증가율을 웃돌았다.

제조기업 평균가동률은 78.2%로 8월보다 2.3%p 하락했으며 재고율은 1.4%p 떨어진 95.0%를 기록했다.

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및 정밀기기 등에 대한 투자감소로 2004년 8월에 비해 0.9%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반전됐다.

설비투자는 2005년 들어 매달 증가세와 감소세를 오가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기계수주는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17.6% 늘어났지만 7월 25.4% 보다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.

<화학저널 2005/09/30>